

한국 중·고·대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최인수¹⁾ 원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학과

본 연구는 한국의 중·고·대학생들의 이성친구선택 기준과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예비설문을 통해서 얻어진 선택기준들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30문항을 바탕으로 본 논문을 위한 설문지를 제작한 후, 이를 422명의 학생에게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세 가지의 중요한 연구문제는 첫째, 한국 중·고·대학생들의 이성친구선택기준은 어떠한가 둘째, 발달연령별로 이성친구선택기준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셋째, 성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였다.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성친구선택에 관한 학생들의 기준은 다섯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다섯 가지 요인은 성격, 외모, 현실적 조건, 비전, 신세대적인 특징과 관련된 요인들이었다. 발달연령별에 따라서는 외모와 관련된 요인과 신세대적 요인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반면에 장래에 대한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과 관련된 선택기준은 발달연령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이성친구선택기준임이 밝혀졌다. 중·고·대학생들이 이성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한 성차는 공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외모와 관련된 요인을 중시한다는 것이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비전, 신세대적인 특징, 현실적 조건들을 남학생보다 더욱 고려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라고 보고된 성격과 관련된 요인에서의 성차는 없었다. 이러한 성차에 관한 결과는 Buss등(1990)의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자료수집 및 문헌정리를 위한 김소라, 이주연 두 사람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없었음을 밝힙니다. 통계자료의 분석은 박원순의 도움이 컸습니다.

1) ic12@yurim.skku.ac.kr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친구관계는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부모에 의존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이러한 수직적 의존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한 지지적 관계를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기 때문이다(Newman & Newman, 1984). 미국의 경우에는 50년대에 벌써 청소년들이 자기들에게 의미 있는 타인을 거명할 때 부모보다도 친구들을 더욱 중요한 타인으로 보고했다(Bowerman & Kinch, 1959).

그렇지만 친구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및 사회성 발달에 주는 역할은 긍정적인 동시에 부정적일 수 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자. Sullivan은(1953) 친구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편향되지 않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타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친구는 청소년의 친밀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성 및 사회에 대한 적응을 발달시키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Piaget(1965)는 도덕적 자율성은 친구들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달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Douvan(1966)은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친구로부터 얻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확립적인 동조압력(Blos, 1962)을 받는다는지, 자아정체성유실(identity foreclosure) (Erikson, 1968), 약물, 일탈 성행동과 같은 행위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발달단계에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생겨난다는 Sullivan(1953)의 견해에 의하면 청소년기 이전에는 동성간의 단짝친구에게서 친밀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크다고 한다. 그러나 신체적·생리적 변화를 겪게되는 청소년초기에 이르러서는 아동기에서 요구되는 동성친구에 대한 친밀감 이외의 또 하나의 사회적 욕구인 성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성친구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성징이라고 불리어지는 급격한 체형과 외모의 변화, 호르몬의 분비와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사회전반에 걸친 성에 대한 개방화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스러운 만남(황상민외, 1999)등과 같은 간접적 원인이 그 유발동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2세경에 초경이 시작되는 등(이춘재, 1988) 성적발육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과 아울러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증가되는 사이버 공간의 활용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기의 이성친구와의 교제는 그리 낯선 현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90%의 청소년이 이성친구가 있다고 보고한 외국의 경우(한국결립, 1985)처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치는 높지 않으나 점차적으로 외국의 수준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율은 35%에 육박하고 있다(권이중, 1994).

청소년들의 이성친구와의 교제도 동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모두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성친구와 교제하는 것을 부모에게 알리는 친구는 절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입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이다(권이중, 1994; 고애자, 1990).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나 교사에게 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까지 나타났다(이윤선, 1987). 부모에게 비밀로 하고 만나는 이성교제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이성교제는 많은 문제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순열, 1995; 이영숙, 1992).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나 교사들의 관심과 이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부모들이 청소년 자녀들의 이성친구

에 관한 이해를 얻고자 할 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를 찾기는 어렵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김현경, 1999) 아직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지식이나 성태도 그리고 이성교제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는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성교제와 관련된 많은 사전연구들은 대부분 미래의 배우자 선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발달연령별로 또한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이성친구의 선택기준에 관한 것은 더욱 드문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기를 청소년전기(11-18)와 후기(19-24)로 구별한다고 할 때(김종서 등, 1982) 청소년 전기의 이성친구와 후기에서의 이성친구에서의 선택기준은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청소년 후기에서의 이성친구는 다음 발달단계인 성인기 초기의 발달과업인 친밀감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중 하나로서 배우자로서까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전기에서는 제 2차 성징을 통한 신체변화를 통해서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혼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동성친구의 연속선상에서 이성친구를 생각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Sullivan, 1953).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보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서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들의 교제관계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선택기준의 차이도 중요할 것이다. 이성친구는 아니지만 배우자 선택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Buss(1986)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확인한 성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남자는 우선 여자의 신체적인 매력을 더 선호하며 여자는 남자의 사회적 성격측면 즉, 좋은 직업, 학벌, 경제

적 능력, 독립심, 친절한 성격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결혼한 남녀에게나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나 비슷한 유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Buss등(1990)은 37개국에 걸쳐서 이러한 차이에 관한 비교문화연구를 실시하여 배우자 선택기준에 관한 성차가 거의 모든 문화권에 걸쳐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 냈다. 이러한 성차를 나타내는 이유에 관하여 Buss는 사회생물학에 근거한 설명을 하고 있다(1994).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족을 보존하고자 하는 본능이고 여기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서 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남자의 경우에는 후손의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후손을 남겨줄 수 있는 배우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 기준으로는 배우자의 젊음, 외모 등을 중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신체구조상 많은 후손을 남기는 전략보다는 10개월의 투자로 인해서 낳은 후손을 잘 키울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신체적 힘이 중요한 시절에는 그 기준이 완력이나 체구와 같은 것이었으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부터는 남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부와 같은 것이 신체적 조건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성선택기준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결혼적령기의 남녀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이경숙(1980), 강은숙(1981), 홍준숙(1987), 안해옥(1987), 임 진(1992), 서병숙 외(1994), 김경신 외(1998), 백남희(1987), 최호원(1984), 윤미영(1995), 김혜선(1992), 김은선 외(1984)). 한국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Buss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남녀모두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애정, 성격, 건강 같은 개인적 속성을 중시하나 이차적으로는 남자는 여자의 용모를, 여자는 남자의 학벌이나 생활력 같은 현실조건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이성선택기준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대부분 결혼적령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에서도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 결혼상대의 선택기준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다른 발달연령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성친구의 선택기준은 과연 무엇인지를 탐색해보고, 발달연령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우리 나라 학생들의 이성친구 선택 기준이 어떠한지를 알아본다
- 연구 문제 2. 이성친구 선택의 발달연령별 차이를(중, 고, 대학생) 비교해본다.
- 연구 문제 3. 이성친구 선택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예비연구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설문지에 들어갈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예비연구가 실시되었다. 이 예비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에 있는 중/고/대학생 남녀 각각 15명씩 총 90명이 임의 표집되었다.

본 연구

이성친구선택기준에 대한 본 설문지에 참가한 총 참여학생수는 총 422명으로써 중/고등학생은 각각 100명씩 200명, 대학생은 222명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학생은 무선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 및 경기도청 소재지의 두 곳에 있는 학교로

국한하였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남녀 공학 및 일반 남/녀학교가 공존하고 있으므로 남녀 공학에서 40명, 남/녀학교에서 각각 30명씩 60명의 학생이 남녀비율이 같도록 선정되었다.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경기도청 소재지에의 K중학교(남녀공학), 서울의 S여중, S중학교등 3개학교 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경기도청 소재지에의 H고등학교(남녀공학), 서울의 Y여고, I고등학교의 3개 학교였다. 대학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S대, D대, K대, K대등 4개의 남녀공학학교에서 남 117명, 여자 105명이 역시 무선적으로 선정되어 본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설문지 제작 및 실시방법

예비연구에 참여한 90명의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설문지가 제시되었다. “저희들이 알고싶은 것은 중(고/대)학생들 여러분이 이성친구를 선택할 때 생각하는 조건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교제하고 싶은) 이성친구의 기준에 대하여 자유롭게 10개씩 기술하여 주십시오.” 산술적으로는 900여개의 기준들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잘생겨야 한다’나 ‘미남이어야 한다’와 같이 문장은 다르나 내용이 중복된 것이 많고 또 10개의 기준을 다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적은 수의 원자료들이 수집되었다. 이 중에서 저자 2명이 상의하여 같은 내용의 문항들에 대해서 통합하는 작업을 거쳐 2(성별)×3(학교)에 따라서 6개의 이성선택기준 리스트들을 마련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개별리스트의 분석에서 빈도 3이상인 문항을 추출하여 모두 87개의 문항을 추출한 다음 다시 저자 2명이 같은 내용의 문항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본 실험을 위한 30개의 문항을 완성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중/고/대학생이 기술했던 선택기준들은 문장의 차이는 있었어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분석결과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30문항에 대한 요인구조를 알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구조에 대한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varimax회전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사전 검사인 바틀렛의 구상성 검사결과 ($\chi^2_{435}=3671$, $p<.001$)와 KMO 수치가 .83 이상으로 요인분석실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스크리 플롯과 고유치를 고려한 결과 최종적으로 5요인 모델을 선정하였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5요인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공통변량의 47%이었다.

제 1요인은 주로 성격관련 특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착해야 한다, 남을 잘 배려해 주어야 한다, 성격이 좋아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나를 잘 이해해 주어야 한다, 바람기가 없어야 한다, 솔직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제 2요인은 신체적인 매력과 관련된 변인으로 외모라든가 성적인 매력을 포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섹시해야 한다, 얼굴이 예쁘거나 잘 생겨야 한다, 몸매가 날씬해야 한다, 귀여워야 한다, 옷을 잘 입어야 한다.

제 3요인으로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 키가 커야 한다, 나와 같은 종교여야 한다,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둘 사이에)와 같은 문항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 4요인으로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성공가능성을 의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4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똑똑해야 한다, 나이가 나와 비슷해야 한다, 나와 취미가 같아야 한다의 6개로 이루어져 있다.

표 1 요인 분석

번호	문 항	성격	외모	현실적 조건	비전	신세대
3.	착해야 한다	.75				
15.	남을 잘 배려해 주어야 한다	.70				
14.	성격이 좋아야 한다	.67				
9.	친절해야 한다	.64				
19.	나를 잘 이해해 주어야 한다	.51				
21.	바람기가 없어야 한다	.49				
24.	솔직해야 한다	.41				
28.	건강해야 한다	.38				
25.	섹시해야 한다		.75			
1.	얼굴이 예쁘거나 잘 생겨야 한다		.73			
8.	몸매가 날씬해야 한다		.71			
16.	귀여워야 한다		.64			
22.	옷을 잘 입어야 한다		.47			
6.	돈이 많아야 한다			.76		
29.	집안이 좋아야 한다			.69		
4.	키가 중요하다			.66		
17.	나와 같은 종교여야 한다			.39		
27.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둘 사이에)			.35		
2.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야 한다				.63	
7.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야 한다				.62	
18.	성실해야 한다				.54	
20.	똑똑해야 한다				.52	
26.	나이가 나와 비슷해야 한다				-.43	
5.	나와 취미가 같아야 한다				.38	
11.	친구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65
12.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					.62
30.	감정이 풍부해야 한다					.49
23.	개성이 있어야 한다					.47
10.	잘 노는 사람이어야 한다					.46
13.	매사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43
고유치		3.48	2.94	2.80	2.57	2.55
설명변량		11.22	9.49	9.04	8.30	8.23

*n=422

제 5요인으로서는 주로 신세대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이 있어야 한다던가, 잘 노는 것이라든지,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와 같이

특목 튀는 신세대의 이상향을 표현해 주는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각 요인의 신뢰도

각 하위 구성개념들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 는 다 음 표2에 제시하였다.

표 2 하위 구성개념들에 대한 신뢰도 계수 α

요인	성격 ¹	외모 ²	현실적 조건 ³	비전 ⁴	신세대 ⁵
α	.75	.76	.66	.68	.64

주) ¹ 8문항, ² 5문항, ³ 5문항, ⁴ 6문항, ⁵ 6문항

이성 선택기준의 하위 구성개념들에 대한 α 계수 의 범위는 .64로부터 .75에 이르기까지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뢰도를 보였다.

학령별 ·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선택기준의 차이

학령별 · 성별에 따른 이성친구선택기준을 분석하 기 위해서 2(성차)×3(학령별)의 이원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표3에는 5개의 요인에 대한 학령별 · 성별 기술 통계치를 제시하고 표4에는 요인별로 이원분 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성격과 관련된 결과를 보자. 성격요인에 서는 대한 학령에서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F_{(1, 414)}=6.168, p<.01$). 사후검증결과 고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성격 요인을 더 많이 고려한다고 말할 수 있다.

외모와 관련된 요인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F_{(1, 415)}=60.337, p<.001$), 그리고 학령별로는 중학생과 고 등학생이 각각 대학생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F_{(2, 415)}=19.889, p<.001$).

현실적조건요인은 성별, 학령별의 주효과와 상 호작용효과가 다 나타났다. 주효과만으로는 여학

표 3 각요인별 기술 통계치

			성격	외모	현실적 조건	비전	신세대
남학생	중학생	평 균	4.28	3.93	3.04	3.61	3.75
		표준편차	.47	.68	.66	.48	.51
	고등학생	평 균	4.36	3.69	2.78	3.42	3.56
		표준편차	.46	.61	.62	.58	.47
	대학생	평 균	4.21	3.46	2.64	3.55	3.42
		표준편차	.53	.63	.61	.63	.52
여학생	Total	평 균	4.26	3.62	2.76	3.54	3.52
		표준편차	.50	.66	.64	.59	.52
	중학생	평 균	4.38	3.39	3.32	3.54	3.89
		표준편차	.41	.58	.72	.65	.50
	고등학생	평 균	4.42	3.23	3.56	4.04	3.80
		표준편차	.35	.60	.54	.44	.36
Total	대학생	평 균	4.21	2.94	3.20	4.03	3.62
		표준편차	.43	.59	.66	.39	.48
	Total	평 균	4.30	3.12	3.32	3.91	3.73
		표준편차	.42	.62	.66	.52	.47
	Total	평 균	4.28	3.37	3.03	3.72	3.63
		표준편차	.46	.69	.71	.59	.51

표 4 5요인의 학령별 · 성별 이원분산분석결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Tukey HSD
성 격	성 별	.27	1	.27	1.29	
	학령별	2.6	2	1.30	6.16**	고>대
	성*학령	.18	2	9.27	.43	
	오 차	87.79	414	.21		
외 모	성 별	23.26	1	23.26	60.33***	
	학령별	15.33	2	7.66	19.88***	중>대 고>대
	성*학령	8.33	2	4.16	.10	
	오 차	159.98	415	.38		
현 실 적 조 건	성 별	26.71	1	26.71	64.93***	
	학령별	6.92	2	3.46	8.41***	중>대 고>대
	성*학령	3.04	2	1.52	3.70*	
	오 차	170.75	415	.41		
비 전	성 별	10.48	1	10.48	35.65***	
	학령별	3.18	2	1.59	5.40**	대>중
	성*학령	6.90	2	3.45	11.74***	
	오 차	121.71	414	.29		
신 세 대	성 별	3.63	1	3.63	15.34***	
	학령별	6.44	2	3.22	13.59***	중>대 고>대
	성*학령	.13	2	6.58	.27	
	오 차	98.38	415	.23		

* $p<.05$, ** $p<.01$, *** $p<.001$

생이 남학생보다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_{(1, 415)}=64.935, p<.001$) 학령별로는 대학생보다 중/고등학생이 현실적 조건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질 수 있으나,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하면(그림 1) 그 해석은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림1을 보면 남학생은 학령이 증가해도 현실적 조건에 대해서 그리 많이 고려하지 않는 반면 여학생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비전과 관련된 변인의 경우에도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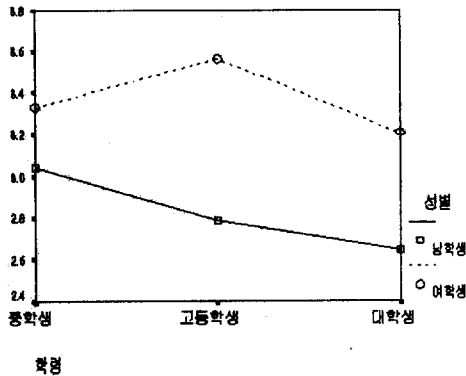


그림 1 현실적 조건요인의 성별·학령별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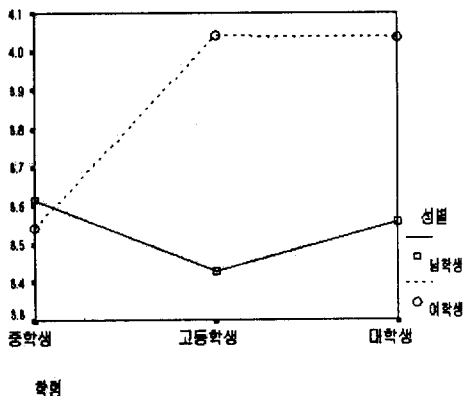


그림 2 비전요인의 성별·학령별 상호작용

그림2를 보게 되면 남녀중학생의 경우에는 비전과 관련된 차이가 없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이 요인을 더욱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_{(2, 414)}=11.743$).

신세대와 관련된 요인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F_{(1, 415)}=15.345, p<.001$) 있으며, 학령별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대학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F_{(1, 415)}=13.599, p<.001$).

요인별 선호도에 대한 보충 분석

표3에서 보여지는 기술 통계치를 가지고 각 요인에 대한 성별 연령별 선호도에 대한 경향성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이원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주는 표4는 본 논문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 줌에도 불구하고 요인별 선호도까지는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본 분석에 이어서 자료에 대한 다각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성별·연령별에 따른 요인들의 선호도에 대한 세부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반복측정에 의한 MANOVA와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요인별 선호도에 대한 세부 분석을 모두 하려면 모두 11개의 비교(전체 학령별(3)+전체성별(2)+성별×학령별(6))를 해야하겠지만 본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령별과 성별에서의 선호도만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령에 따른 요인별 선호도의 결과는 중/고/대학생 각각에 있어서 5가지 요인의 평균점수는 통계적으로 같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중학생 $F_{(4, 384)}=73.65, p<.01$; 고등학생 $F_{(4, 396)}=73.65, p<.01$; 대학생 $F_{(4, 884)}=227.38, p<.01$). 또한 성별에 따른 각 요인별 평균도 동일하지 않다는 결과도 얻었다(남학생, $F_{(4, 882)}=277.14, p<.01$; 여학생 $F_{(4, 816)}=216.29, p<.01$). 이러한 MANOVA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별 평균 차에 관한 Bonferroni 사

표 5 요인별 평균점수를 이용한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

Bonferroni검증결과					
	1.성격	2.외모	3.현실적 조건	4.비전	5.신세대
중학생	3<1,2,4,5,	4<12,	2<1		
고등학생	3<1,2,4,5,	2<1,4,5,	4<1		
대학생	3<1,2,4,5,	2<14,5,	3<12,	2<1	
남학생	3<1,2,4,5,	4<1,2,	2<1		
여학생	2<1,3,4,5,	3<1,4,5,	5<1,4,	4<1	

후검증결과를 표5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증결과표에는 기술통계치까지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나 표 3에 관련된 기술 통계치를 이미 제시하였고 표의 난잡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평균들의 순위에 관한 자료만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표5에서 보여주듯이 한국청소년들은 성별·연령별에 관계없이 이성친구를 사귄 때에 성격관련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실적 조건요인을 가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선호도를 보면 남학생은 성격요인 다음에 외모요인을 선호하고, 여학생은 비전과 관련된 요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논문은 첫째, 우리 나라 중, 고 대학생들이 이성친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를 탐색해보고 둘째, 발달 연령별로 이성친구선택기준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

셋째, 발달연령별로 이성친구의 선택에 있어서 성차가 존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나라 중, 고, 대학생의 이성친구 선택기준

설문자료를 요인 분석한 결과 우리 나라 중, 고,

대학생들이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착해야 한다, 남을 잘 배려해 주어야 한다, 성격이 좋아야 한다와 같은 성격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겨야 한다, 몸매, 옷을 잘입는 것과 같은 외모와 관련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요인은 돈이 많아야 한다, 집안이 좋아야 한다던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와 같은 현실적이고 마치 요즘 유행하는 결혼정보회사에서 따지는 조건들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요인으로는 장래에 대한 성공가능성이나 주관, 성실하고 똑똑한가와 같은 미래에 대한 비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요인은 요즘 신세대의 특징과 관련된 것으로서 얼마나 개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한국 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이성교제와 관련된 설문지의 하위요인들은 연구자의 경험 및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개발되었고(김현경, 1999) 직접 청소년들에게서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탐색되어진 5가지의 요인은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발달연령에 따른 차이

성격요인은 이성친구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임이 밝혀졌다(표5). 이러한 결과는 중/고/대학생을 따로 연구했던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구은숙, 1997; 이계화, 1988; 신상화, 1986.) 중, 고, 대학생 모두 이성친구를 사귄 때에는 자기에 대해서 잘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더욱 호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신세대 젊은이들이 사람들의 됬됨이보다는 외모만을 너무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기성세대의 우려와는 사뭇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학령별 분석결과는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도 성격관련변인에 대한 비중을 더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 추후 연구에서 더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역시 외모에 관련된 특징은 연령이 어릴수록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보다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이성을 선택하는 준거로 외모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중학생들에게 있어서 외모요인과 신세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함께 묶여져서 성격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요즘층 출중한 외모와 튀는 개성을 가지고 있는 10대 연예계의 스타들에 심취하는 중학생들의 경향을 반영해주는 결과일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세대의 특징과 이성선택기준에 대한 추후연구도 흥미로운 작업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비전과 관련된 요인들이 성격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이성친구를 선택함에 있어서 더욱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똑똑한가, 성실한가,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가와 같은 문항으로 묶여져 있는 이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되는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학업성취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제 1순위인 고등학생들에게 당연히 인기 있는 친구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비전과 관련된 요인은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금 현재 돈이 많은가, 집안이 좋은가와 같은 현실적 조건보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높은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신세대의 학생들이 외적 조건보다도 가능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과 재미를 중요시하는 신세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도 더욱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도 언급한 현실적 조건과 관련된 변인들은 비록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조건

중에 하나임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우선 순위에서는 중, 고, 대학생 모두 가장 낮은 선택기준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발달연령에 따른 차이에 관한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서론 부분에서 Sullivan(1953)의 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 전기와 후기에 있어서 이성친구의 선택기준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청소년 전기에서는 외모와 신세대와 관련된 특징이 더욱 중요하였고, 결혼적령기에 가까워지는 청소년 후기에서는 비전과 현실적조건과 관련된 요인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

5가지의 요인에 관한 분석을 통해서 성격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요인에서 성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성격과 관련해서는 남녀학생 모두 제일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었다.

외모와 관련된 변인에서의 남녀 차이는 뚜렷했다. 즉 중/고/대학의 남학생들은 얼굴이나, 몸매, 성격인 매력과 같은 요인들이 이성친구를 사귀는데 있어서 성격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외모와 관련된 요인 이외에 나머지 3개의 요인인 현실적 조건, 비전, 신세대와 관련된 기준들 모두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을 선택하는데 있어 미래에 대한 성공가능성이나, 현실적인 조건의 경우에는 여학생에게 있어서 남학생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본 논문에서 사용되어진 검사는 사전연구나 문헌조사에 기초하지 않고 학생들 자신이 직접 기술한 문항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좀더 현

실적으로 학생들의 심리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성친구의 선택기준에 관해서 청소년의 특정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중/고/대학생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비교하여 발달 및 성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청소년에게 물었던 내용은 배우자가 아닌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기준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배우자의 선택기준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 대부분 일치하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가 Buss등의 것과 다른 것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성친구를 선택할 때에 경제조건과 같은 현실적 조건보다도 얼마나 비전이 있는가를 더욱 중시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목전에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과 친구로서의 기준에 있어서 선호되는 요인들의 순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uss등의 연구들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었지만, 비슷한 결과가 우리 나라에서는 훨씬 어린 연령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결과는 앞으로 다른 나라의 자료를 통해서 비교검증을 해 볼 만하다. 훨씬 어린 발달연령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Buss의 해석(1994)은 더욱 무게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에 후속 논문에서 이러한 제한점 보완된다면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본 논문은 청소년의 이성선택기준의 발달적 성적인 차이를 보려는 탐색적인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현실을 알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변인들--실제 몇 번 또는 몇 명의 친구와 사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등과 같은 구체적인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방법론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필 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

기보다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이동 통신 등을 이용하는(Csikszentmihaly와 Larson, 1984) 방법 등을 사용한다면 더욱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논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좀더 생태학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한 일반화를 위해서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변인 등을 고려한 표집방법에 따른 좀더 많은 연구대상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십대 청소년을 N세대라 규정할 때(황상민의, 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만남과 현실적인 공간에서의 만남의 차이 등에 관한 연구도 추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방법론적인 제안이다. 이성친구선택기준에 대한 한국학생들의 심리구조를 탐색하고 또한 하위 구조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가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본 논문에서는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는 각 중/고/대학생별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좀더 직접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공변량구조분석등 통해 특정 발달연령의 이성친구선택기준에 관한 모델을 세워놓고 다른 발달연령의 자료를 비교하는 모델인정(model identification) (이순목, 1990)과 같은 방법으로의 비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참고문헌

- 강은숙 (1981). 서울시와 제주시의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애자(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이중, 김문조, 김선업(1994). 10대 청소년의 생활설계. 삼성복지재단

- 김경신 (1998). 미혼남녀의 사랑과 성에 대한 태도 및 배우자 선택조건. 대한 가정 학회지, 115.
- 김경신, 김오남, 이선미(1995).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조건 및 관련 요인 분석. 전남대 가정과 학연구, 5, 103-117.
- 김경신, 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1(1), 27-43.
- 김은선, 김영희(1983). 배우자 선택과 성의식에 관한 연구 2 ; 한국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방통대논문집 3.
- 김현경, 최수정, 김미영, 양경미, 임미림 (1999). 성지식·성태도에 관한 우리 나라 연구내용 분석-중·고·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교육·보건증진학회지, 16, 1, 167-184.
- 김혜선 (1991). 배우자 선택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 방통대논문집 12.
- 김혜선 (1992). 배우자 선택과정과 결혼 만족도 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혜선, 한희선 (1996). 배우자 선택 메카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
- 문혜숙(1996). 미혼남녀의 배우자 선택 및 성태도에 관한 연구 2. 장안논총 16.
- 박미혜 (1991). 한국의 교육계층으로 본 배우자 선택. 가족학논집 3.
- 백남희 (1987). 결혼적령기 남녀의 배우자 선정조건-서울을 중심으로.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해옥 (1987). 미혼남자 대학생의 결혼관에 대하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영 (1995). 여대생의 성격유형과 성역할 특성에 따른 이상적인 배우자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숙 (1992). 성문제, 청소년 문제론. 한국청소년 연구원. 270-293.
- 이윤선(1987). 청소년기 성태도 형성과 그 중요성에 관한 통계적 관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성원사
- 이춘재 외(1992).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임 진(1992). 일부 미혼여성의 결혼관에 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민자 (1987). 배우자 선택, 결정에 미치는 요인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연구 논문집(자연과학, 공학), 18(1).
- 최호원 (1984). 결혼의식에 나타난 배우자 선정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대학원.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5).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홍준숙(1987).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효성 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상민, 한규석외(1999). 사이버 공간에서의 심리. 서울: 박영사
- Blos, P.(1962). *On adolescence: a psychoanalytic interpretation*. New York: Free Press.
- Bowerman, C. & Kinch, J.(1959). Changes in family and peer orientation of children between the fourth and tenth grades. *Social Forces* 37: 206-11.
- Brown, R. A (1994). Romantic love and spouse selection criteria of male and female Korean college student.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4, 183-189.
- Buss, D. M. (1990). International Preferences in Selection Mate-A Study of 37 Cultur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25.
- Buss, D. M.(1994). *The evolution of desire*. Harper Collins. NY: New York
- Buss, D. M., Barnes, M. (1986). Preference in Human Mate Se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59-570
- Cskiszentmihaly, M., Larson, Reed. (1984). *Being Adolescent*. New York: Basic Books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Elsevier.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eingold, A.(1990). Gender difference in effect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Newman, B. M., & Newman, P. R.(1984).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Illinois: The Dorsey press.
- Piaget, J.(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Translated by M. Gabain. New York: Free Press.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Wagner, B. M., Cole, R. E., & Schwartzman, P.(1993). *Prediction of suicide attempt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youth*.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RCD. New Orleans.

A study on selection criteria of Korean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romantic relation

In-Soo Choe, Yunseon Wo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and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422 Korean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ere investigated to explore their preference in romantic relation with opposite sex. The study consisted of two phases. First, to find out what Korean students count most when they choose their opposite sex friends, preliminary survey was administered to 90 Korean students (45 male and female: 30 students at each schools). They were asked to list their preference in choosing opposite sex friends. Out of 900 lists, items which had most frequencies were selected to make a questionnaire. At phase two, 422 middle,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ate their preference to 30 item Likert scale. Factor analysis was executed to find out psychological structure of Korean students. Based on scree plot and eigen value, final 5 factor model was selected. The 5 factors were students' preference on personality, physical appearance, material resources, vision and features of new generation. Comparison of means showed that male students prefer physical appearances more than female students do, regardless of ages. On the other hand, female students count more personality, material resources, vision and features of new generation than male students. This study shares the same results with Buss' international study on preferences in selecting mates.